



오전 7시 50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박기택 대리의 마음이 바쁘다. 회사에 들어선 시간은 55분. 한숨을 내쉬 박대리는 오늘 일과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A&C 완수, 이번 한 달간도 단 한번의 지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프로젝트 압축이 아니다. 인컴브로더는 8시 출근을 엄수한 직원에게 문화상품권 10장을 제공하고 있다. 재미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출근 관리 시스템이다.

독특한 사내 문화 형성

인컴브로더의 손용석 사장은 무엇보다 '건전한 조직'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즉, 조직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직 안에서 존중받고 조직의 가치관과 위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 인컴브로더는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기업철학 아래 '파이 나누기 제도'를 통해 3:3:3:1 원칙을 지키고 있다. 매달의 경영실적을 공개해서 순익을 30%는 주주, 30%는 직원들에게 분배, 30%는 회사에 재투자, 그리고 나머지 10%는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과 회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손성철 사장의 지론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직원들이 회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한 직원들에게 한 달

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와 남자 직원들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5일간의 휴가를 주는 '아버지 휴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동호회, 학습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사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친목 도모와 함께 취미생활을 통해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모임은 현재 학습분야와 함께 여러 가지 스포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행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회사는 전문가가 만든다

전문성이 뛰어난 좋은 홍보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문회사는 전문가가 만든다 (machoman@incom.co.kr)

받고 있는 인컴브로더는 업계 최저의 이직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곧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있어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인컴브로더의 가장 차별화 된 강점이라고 인컴브로더측은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KMS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들 수 있다. 홍보는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모으고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인컴브로더는 IKON(InComm Knowledge on the Net: 온라인 상에서 인컴브로더의 지식)과 KAnt(Knowledge ANT: 재미처럼 지식을 모아서 활용하자는 의미) 그리고, 미디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브로더 월드와이드와 조인트벤처로 새출발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인컴브로더는 향후 선진 PR 기법을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브로더 월드와이드의 인터넷에 접속해서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연수와 교환 근무 등의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홍보 대행은 곧 마인드

손용석 사장은 전문 홍보대행사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에 대해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문제를 인

인컴브로더는 '건전한 조직'을 위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으며, 그 솔루션의 실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객의 발전이 인컴브로더와 그 구성원들의 발전으로 직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더욱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최윤정 사원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 개인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없듯이 조직도 자신들의 핵심역량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는 없으며,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홍보 분야에서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대행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도 대행료를 지불하고 대행사의 전문 노하우를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내의 홍보담당자 한 명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기법은 양이나 수준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ICRA**

인컴브로더 PR2 유티 최윤정

인컴브로더가 좋은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갖고 지라왔을 것이다. 어릴 때의 꿈은 저 멀리 있는 크고 아름다운 몽게구름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비를 맞으며 우리는 그 때의 꿈들을 잊거나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현실은 달콤한 솜사탕이 아닌, 씹쓸한 딸과 같기 때문이다.

나 또한 나뉘는 인생사를 거치면서, 꿈들이 깰어나가고 때로는 망가지는 경험을 거쳐왔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컴브로더와 마주치게 되었다.

내가 인컴브로더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꿈을 지켜주고 키워주려는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회사라 함은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뺄아 들여 회사를 키우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을터인데, 인컴브로더는 그렇지 않다. 항상 사람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길을 터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발휘시킬 수 있는 일을 주려고 노력한다.

인컴브로더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인간중심(Humanity)'과 '경쟁력(Competency)'이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컴브로더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컴브로더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가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려는 단순한 경쟁논리나 인일함은 사양이다. 중요한 것은 '~중 베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그 과정 또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물리쳐야 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인컴브로더는 직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것 뿐 아니라 PR 산업 전체의 발전 또한 고려한다.

물론 누구나 다 인컴브로더 내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만족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식구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인컴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을 어떻게 살아 나가는지, 그리고 꿈은 어떻게 꾸어야 하는지 등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인컴브로더를 숨쉬게 하는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